



전준혁

광주 출신 소년 발레리노, 英 로얄발레학교로 날다

한국 남성 무용수 첫 입학...동양인 최초 전액 장학금 스웨덴왕립발레단 전은선씨 등 고모 3명도 무용 전공 5년전 발레 전념 위해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포기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 탄광촌의 가난한 소년이 발레리노의 꿈을 키워가는 따뜻한 작품이다. 영화의 인기로 힘입어 뮤지컬로 제작된 '빌리 엘리어트'는 엘튼 존의 음악과 소년 발리들의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전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09년 한국판 '빌리 엘리어트' 프로듀서였던 문미호(46·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교수) 매지스텔라 대표는 이듬해 공연을 앞두고 '한국의 빌리'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1년간 전국을 돌며 오디션을 진행하던 그녀의 눈에 한 소년이 띄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전준혁(16)군이였다. 뮤지컬 제작에 함께했던 해외 크리에이티브팀도 오디션에서 준

혁군을 발견하고 "바로 우리가 찾는 빌리"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빌리 스쿨'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공연을 준비하던 준혁 군은 '발레'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빌리를 포기했다.

5년의 세월이 흘러 뮤지컬 속 '빌리'가 될 뻔했던 소년은 현실의 '빌리'가 되었다.

광주 출신 전준혁 군이 세계적인 명문 영국로얄발레학교에 입학한다. 한국인 남성 발레리노로는 처음으로 3년 정규 코스를 밟는다. 동양인 최초로 전액 장학금(1년 학비 5000만원)도 받았다. 영국로얄발레학교는 1926년 '영국 발레의 어머니'로 불리는 니네프 드 발루아가 세운 세계적인 발레 전문학교다.

모든 무용인들의 꿈인 로얄발레학교 입학은 올 2월, 세계 4대 콩쿠르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 드 로잔 콩쿠르' 파이널에 진출하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당시 경연 모습을 인상깊게

본 크리스토퍼 포우니 교장이 직접 메일을 보내 입학을 권유했고, 학비를 부담스러워하는 그에게 장학금도 주선했다.

광주에서 태어난 준혁 군의 집안은 광주에서 유명한 무용 가족이다. 고모 세명이 모두 발레를 전공했다. 숙명여대에서 무용을 전공한 전정미(45)씨, 유니버설발레단원으로 10년간 활동했던 정아(43)씨, 호남예술제에서 초·중·고 시절 모두 최고상을 수상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을 거쳐 스웨덴왕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중인 은선(41)씨다.

준혁 군은 4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다. 고모가 광주에서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며 강습을 받았고, 6살 때 광주를 떠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원에서 역시 광주 출신인 김선희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그는 뉴욕 YMGF 콩쿠르, 이탈리아 시실리 바로가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7월에는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영국로얄발레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꿈은 영국로얄발레단에 입단하는 것이다. 준혁 군 역시 학교를 마치고 로얄발레단에서 들어가 주역으로 활동하는 꿈을 꾸고 있다.

광주 출신인 문미호 대표는 "준혁이가 2대 빌리를 발굴하는 데 멘토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광주를 빛낼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하며

▲지역 고등학생 등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을 꽃으로 승화시킨 작품.

광주미협-민미협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전...메트로 갤러리

광주미술협회(회장 나상옥)와 광주민족미술인협회(회장 조정태)는 공동으로 23일부터 6월4일까지 광주 메트로 갤러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전시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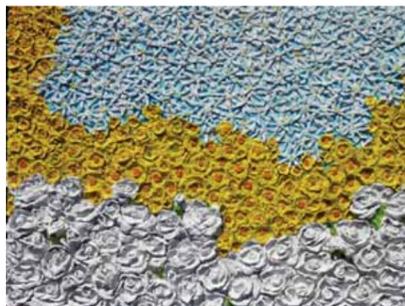
'아픈 세월, 슬픔의 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차가운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과 친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 비통한 심경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균·김준호·전종관·한남순·김남기·박은수·전병문·정성복·추현경·박종석·최재영·정해숙·주성희·주순정·선지영·최경화·김병택씨 등 지역 작가들이 세월호 참사와 슬픔에 잠긴 우리나라를 기록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또 독립큐레이터 탁해성씨가 기획한 세월호 추모 온라인 전시(<http://sewolonline.com>)에 선보였던 일부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0여점이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때 진행된 '민주대성회'에서 전시됐던 세월호 희생자들의 꽃 영장 304점이 함께 전시된다.

놀이때 신명의 박강의씨가 기획한 이번 세월호 희생자 꽃 영장 작품은 지역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이들은 위로의 의미와 미안한 마음을 담아 세월호 희



이인호 작 '진혼곡'

생자 한 명 한 명을 꽃으로 승화시켰다.

나상옥 회장은 "이번 전시가 끝나고 국회 등 전국 순회 전시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모든 국민과 예술인들이 아파하고 있으며, 영원히 그들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번 전시에 담았다"고 말했다. 전시 개막식은 23일 오후 5시다. 문의 062-222-3757.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다산 초당서 국회의사당까지

이매리 작가 '로드 프로젝트'

31일까지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하이힐 작가 이매리 씨가 26~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3층에서 'On the Road to Wisdom-강진 다산 초당에서 국회의사당까지'를 주제로 전시를 연다.

'인문학적 여정으로 드러나는 하이힐의 의미 확장'이라는 부제를 지닌 이번 전시에는 이씨의 하이힐 설치작품과 함께 작가가 19~31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로드 프로젝트 결과물(사진)이 전시된다.

작가는 조선시대 후기 정신문화의 거목이며 실천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 세계를 추적하고 삶의 흔적이 깃든 현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다. 다산 학문의 산실인 다산 초당, 다산에게 차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열어준 혜장 스님의 부도가 있는 대흥사 부도전, 다산과 초의 선사와의 만남을 연결한 백련사와 다산 초당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다산 철학의 정신적 스승인 기대승의 월봉사원, 다산의 지지자이며 조선후기 문화융성기를 이룬 정조의 왕릉 같은 역사 속 현장들을.

이씨는 현장에서 재생 종이를 이용해 만든 하얀 구두 작품들을 일렬 또는 나선형, 동심원 등으로 설치하면서 작품을 매개로 다산과 혜장 스님 등 당시의 사상가들에게 자연스레 스며든다. 그리고 그 영상과 스틸 사진들을 이번 전시에서 함께 선보인다.

전시 개막식은 26일 오후 2시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촛불'을 들고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리는 67번째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 주제는 '촛불'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들었던 촛불. 34년 전 5월을 생각하고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촛불을 노래와 그림, 연주와 영상으로 함께 들어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해금 연주자 김주리씨가 출연한다. 창작국악그룹 '그림'과 해금밴드 주리스쿠스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다.

김씨와 함께 박의혁(클래식 재즈), 주홍(샌드 에니메이션), 바다프로젝트(임웅·김영훈·김현우), 느티나무밴드(정은주·조성우·박우진·송기정), 김원중씨가 무대를 꾸민다.

이달의 화가에는 조선대 미대 출신인 이준석씨가 선정됐다. 이씨는 1999년 광주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와 전국민족미술인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공연 수익금 207만1960원은 추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논의해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10-36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목포점 061)262-9200

충장점 062)227-9970

장흥점 080)222-9975

순천점 061)752-9940

서울점 02)765-9940